



전북농협·여성자원활동센터, 겨울나기 지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4일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황정희)와 함께 사랑의 연탄 2천장을 어려운 이웃 8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전북농협 직원들과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연탄을 배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등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황정희 회장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내시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농협은 일반봉사자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더 따뜻한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북은행, 500만원 상당 ‘사랑의 김장’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3일 전주시청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웃사랑의 온정을 전하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사는 향토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달식에는 전주시 김승수 시장,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김경진 부행장, 최강성 사회공헌부장, 송형섭 전

주시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부된 500만 원 상당의 김치는 전주시 관내 5개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4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진 부행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맞는 겨울이지만 여전히 침체된 지역경제와 위축된 기부문화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익을 확산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바이오진흥원, 발달장애인과 함께 김장 담그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23일 전주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장애인부모회와 함께 전주 지역 발달장애인 50여 명을 초대해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치유농장(케어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들이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배추가 김치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날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행사를 통해 100포기(20kg 상당)의 김장김치를 만들어 행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김동수 원장은 “올해 초부터 진행해왔던 치유농장(케어팜)과 연계한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임상분야별 전문의 대거 배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과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의 12명을 추가 배출했다.

24일 전북대병원 약제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경기도 동탄교에서 실시된 제2회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최은정(김영의료), 고진영, 문미경, 범진선, 설미진, 차현경(노인의료), 박현규(심혈관계질환의료), 강옥경, 윤보현, 장진아(영양의료), 허미정(의약정보), 임호영(중환자의료) 등 12명의 의사가 합격했다.

전북대병원은 총 10개의 약료분야 중 9개의 약료분야에서 17명의 전문의가 활동하게 됐다. 특히 이번 자격 시험을 통해 다른 약료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던 의사들이 복수 전문의 자격을 갖게 됐다. 최은정 의사(중환자의료, 노인의료), 김영의료, 총 3개 분야에서, 강옥경 의사(영양의료)와 내분비의료, 박현규 의사(심혈관계질환의료)와 장기이식의료, 범진선 의사(설미진 의사)는 노인의료와 의약정보, 임호영 의사(중환자의료)와 소아의료 총 2개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추어 올해 총 5명이 2개 분야 이상의 복수 전문의 자격을 갖게 됐다.

이번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12명의 의사들은 환자의 안전한 약물요법을 위해 더욱 충실히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와 함께 전북대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약제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윤상 기자



태권도원 내 격파체험, 상설공연, 모노레일 등 체험과 태권도원을 산책하며, 밤하늘의 별을 보는 ‘태권이행’. 일여행에서 즐기는 ‘제즈공연’과 ‘국악공연’ 등은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좋았다.

여행상품의 전용 예약처인 소셜커머스 티몬 관계자는 이용한 단체 여행상품으로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온라인 소셜커머스 티몬을 통해 판매했다.

여행 콘텐츠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체험과 야외 활동 중심으로 체워졌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태권도진흥재단, 2021 태권투어 성황리 마감

전북도와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와 관광을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여행상품인 ‘태권투어’ 모객이 당초 목표 2,000명을 넘어선 2,6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감됐다고 24일 밝혔다.

‘태권투어’는 개별차량과 기차(KTX)를 이용하는 개별 여행상품과 전용버스를 이용한 단체 여행상품으로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온라인 소셜커머스 티몬을 통해 판매했다.

여행 콘텐츠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체험과 야외 활동 중심으로 체워졌다.

“지난 10월에 11월 20일까지의 예약이 조기 미감되고, 일일 최대 100여명 대기 고객이 발생했으며, 티몬 게시판 후기글에 태권도원 여행상품 판매 수량 및 판매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고객 후기글이 올라오는 등 태권투어의 선풍적인 인기를 실감했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페이퍼, 팔복동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전달

전주페이퍼(대표 정민천)는 24일 팔복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전주페이퍼 사원들이 힘을 모아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박스를 전달했다.

전주페이퍼는 1965년 새한제지로 출발해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 국내 최대의 신문용지 제조회사로 발전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팔복동 관내 회사로, 매년 팔복동 관내 주민들을 위해 명절 및 연말연시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업이다.

전주페이퍼 정민천 대표는 “매년 겨울 김장김치를 사원들과 직접 담가 관내 취약계층에게 나눠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민원실, 국민행복민원실 평가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 민원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국민행복 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인증패를 받았다.

남원시에 따르면 24일 서울 금천구청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지난 2017년에 이어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 시·도 교육청,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경험하는 민원실 내·외부 환경, 안전환경, 민원 행정 서비스 분야를 4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행복민원실을 선정하며 그 지위

를 3년간 인정한다. 남원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유아등을 위한 우선 배려창구 운영 ▲접근?음성 무인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로 보는 생활민원안내 책자제작 ▲거동불편 민원인을 위한 도움벨 설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 상담창구 운영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 기자



전주신세계 라이온스 클럽, 사랑의 김장 나눔

전주신세계 라이온스클럽(회장 고용철)은 24일 어르신, 저소득층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에 김장김치 5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김장김치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직접 정성으로 버무린 맛있는 김장김치를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에 50박스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성 인후3동장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전주신세계 라이온스 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이 어려운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앞으로 인후3동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평화2동 자생단체연합회, 김장김치 나눔 행사

전주시 평화2동(동장 김현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영재)와 자생단체는 24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주민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평화2동 자생단체 연합으로 배주 800포기(1,000여만 원 상당)를 버무리고 포장하여 총 150여 상자(1상자: 10kg)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평화2동 자생단체연합회는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행사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대상자 150여 세대)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과 이웃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생활체육학과, 맞춤형 취업박람회

전주대학교는 ‘전주대 생활체육학과 취업의 어제,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2021 생활체육학과 맞춤형 취업박람회 및 잡페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체육학과 재학생에게 스포츠 분야 취업의 다양성과 취업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분야 취업 전문가와 학과 선배 현직자와 특강과 멘토링을 실시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주시 체육회 전북스포츠과학센터 등 관련 기관 관계자의 특강과 증강현실, AI, IT관련 스포츠 분야 기업 대표들이 직접 교류함으로써 해당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에게 도전 의식을 높여줬다.

홍성택 교수(생활체육학과)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체육, 스포츠 계열 진로 및 직업 분야를 심도있게 탐색하고 진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 에너지 절약 챌린지 동참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은 지난 23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챌린지’에 홍보주 남원시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고,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장을 지목했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챌린지’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우선구매, 전자티비 콘센트 사용 등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시작되어 이어지고 있다.

양희재 의장은 23일 오전, 의장실에서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강조하며 “냉온수기 OFF, 환경 ON”이라는 전기절약 방법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김기두 기자